

여수시, MICE산업 관광 新성장 동력 ‘금부상’

해외 기업 대상 인센티브 단체 투어 유치 집중 여수항 국제크루즈 입항...글로벌 인지도 제고

최근 들어 여수를 방문하는 마이스(MICE) 관련 해외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늘면서 여수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한 데이터랩 통계 분석 결과 지난 2022년 여수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2만8천439명이었던 것에 대비 지난해 2만920명으로 증가, 올해 6월 말

기준 2만500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낮은 국제적 인지도와 취약한 교통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 해외 인센티브 단체 유치 등 외래 방문객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 협력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지방공항 연계 상품 개발을 위한 몽골 여행사 초청 팸투어(몽골지사, 현지 여행사 6) ▲지방 연계 마이스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뉴욕 한인 여행사 초청 팸투어(뉴욕지사, 현지 여행사 12) ▲한국인이 사랑하는 섬과 미식 여행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싱가포르 여행사·인문인 초청 팸투어(싱가포르지사, 현지 여행사 23) ▲대만 예능프로그램 '비, 영업중' 촬영(대만지사) 등이다.

특히 싱가포르지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팸투어는 Shangri-la Cycling Tours 자전거협회 행사 유치(2023년 3월 개

최)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Pinnacle Travel Services 골프 인센티브 단체 방문을 유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 해외 기업 마이스 행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권 국가의 '주요 인센티브 그룹 전문 여행사'와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해 활발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여행사 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해 베트남 Bao Viet 보험회사 기업 68명과 응옥린 기업 30명 등 인센티브 투어를 유치하

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6월에는 대만 고구마 산업과 관련한 기업 대표와 학자, 전문인사 등 45명으로 구성된 고구마산업전략연맹 연수단을 유치,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벤치마킹과 사회적기업 '쿠키아' 가공공장 방문을 통한 제품 구매와 수출 협약 논의 등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됐다.

여수항은 인천항과 제주항, 부산항, 속초항과 더불어 국내 5대 크루즈 기항지 중 하나다.

지난해 7년 만에 여수항을 찾은 중국 크루즈선 '자오상이둔(Zhao Shang Yi

Dun)호'를 비롯한 5항차 입항으로 외래 관광객 3천977명이 방문했으며, 올해에는 씨네크루즈 선사의 '씨넨저전(Seabourn Sojourn)호'와 포넨트 선사의 '르자크 카르티에(Le Jacques Cartier)호' 등 4척의 크루즈 입항으로 외래 관광객 3천479명 방문이 예상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방 소도시의 수도권에 비해 글로벌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외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며 "관광시장의 활성화와 다양화를 위해 여수를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 유치가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기자

“지상 최대 물싸움”...정남진 장흥 물축제 ‘팡파르’

내일부터 9일간 탐진강·편백수 우드랜드 일원 락 페스티벌·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 등 다채

제1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27일부터 8월4일까지 장흥군 탐진강과 편백수 우드랜드 일원에서 열린다.

25일 장흥군에 따르면 'ALL 水 좋다-신나는 장흥 물축제'란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올해 물축제는 보다 젊어진 축제, 글로벌한 축제로 열릴 예정이다.

새로 선보이는 '글로벌 워터월드'와 '장흥 락 페스티벌'은 젊어진 물축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 글로벌 워터월드는 기존 워터파크 파티에 멀티미디어 쇼를 접목한 풀파티로, 밤까지 이어지는 물축제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올해는 뉴진스, 주주, 푸른, 우리, 뮤즈, 배기 등 유명 DJ가 물축제의 시원한 여름밤 속으로 안내한다.

오는 31일과 8월1일에는 장흥 물축제 글로벌 워터월드 무대에서 '장흥 락

페스티벌'이 열린다. 락 페스티벌 '성난 고래의 노래'는 음악과 함께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특별한 공연이다.

장흥물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는 '지구 온난화 타파! 치유'의 물, 건강의 물, 장수의 물 '장흥'을 주제로 펼쳐진다. 올해 살수대첩은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불의 여신에 맞서는 물축제 캐릭터 온비와 온비 레인저스의 모험을 그린 퍼레이드로 구성했다.

축제 기간 매일 오후 3시부터는 황금물고기 잡기가 열린다. 장어, 잉어, 메기, 송어 등의 다양한 물고기를 잡기 위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대왕장어를 잡은 사람에게는 특산품을 선물로 증



장흥군이 27일부터 8월4일까지 9일간 지상 최대 물싸움 '제1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물축제 현장 모습.



공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라며 "장흥 물축제에서 가슴 뛰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록기자

고흥 관광객 30% ↑ 상반기 310만 돌파

쑥섬·편백 치유 숲 등 인기

고흥군은 25일 "올해 상반기에 고흥을 찾은 관광객 수가 310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고흥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성과로 풀이된다. 고흥군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관광 명소를 갖고 있어 매년 고흥을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 민간정원 1호인 쑥섬은 전년 대비 100%, 팔영산 편백 치유숲은 23% 증가하는 등의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토요일 오후 9시 녹동항에서 펼쳐지는 드론쇼 역시 관광객들에게 매우 새로운 감동을 주고 있으며, 코델리 관광개발과 함께 운영하는 우주과학 열차도 매회 매진되는 등 각종 관광 콘텐츠가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나로우주센터 내 우주과학관과 고흥만 간척지에 있는 드론센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관광 품질과 만족도를 함께 끌어올려 체류일, 재방문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내실을 다지겠다"고 전했다. /고흥=최봉환기자

광양만 조망...구봉산 조형물 '영원의 봉수대' 디자인 선정

내년 준공 목표...높이 25m·회전 경사로 조성

광양시는 25일 "포스코와 함께 추진 중인 '구봉산 명소화 사업'(체형형 조형물 설치사업) 작품 디자인이 '영원의 봉수대'를 주제로 하는 A안(기존 3안)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작은 역삼각형 구조의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높이 약 25m, 폭 최소 10m-최대 19m 규모로, 회전 경사로(230m)를 이용해 누구나 정상까지 쉽게 올라 광양만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최종안의 특징이다.

특히 관람객들에게 짜릿한 신체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강렬한 체험 요소인 유리 바다, 공중 다리와 함께 만화경, 아트월, 유리 기둥, 소리 난간 등이 구성 요소로 추가돼 관람에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작품을 디자인한 스페인 작가 마누엘 몬테세린은 "영원의 봉수대는 광양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함과 동시에 늘 새로운 소식과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며 "다양한 경험으로 즐겁고 놀라운 기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광양시와 포스코는 선정된 작품을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아이엔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많은 시민의 참여와 도움으로 최종 디자인이 선정됐다"며 "고유하고 독특한 역사를 표현한 상징적인 조형물로 광양과 구봉산



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장성군 '제64회 전남체전' 준비 본격화

내년 4월18-21일 기간 확정...대회 상징물 등 논의

장성군은 25일 "전남도체육회로부터 제64회 전남체전 대회기간을 승인 받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제64회 전남체전 기간을 2025년 4월18일부터 21일까지로 확정하고, 지난 22일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남체전 준비 사항 공유 및 주요현안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집행위원장인 김한중 장성군수 주재로 이재양 장성교육장, 윤시석 체육회장 등 2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확정된 전남체전 대회기간과 상징물 선정 현황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선수단 숙박시설 마련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성=김문태기자

위원들은 담당부서로부터 가용 숙박 시설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각각 소견을 밝혔다.

장성군은 이날 제시된 숙박시설 활용 방안을 참고해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통-주차장 대책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집행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 체육회의 경기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장 시설 보완 대책도 수립한다.

김한중 집행위원장은 "완성도 높은 대회 준비를 위해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 소통과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남 체육인들에게 화합과 감동의 스포츠 축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준비하자"고 독려했다.

담양군의회, 인구소멸 대응 정책연구 현장견학

농촌유학 활성화 모색...곡성 등 모범사례 견학

담양군의회는 "최근 담양군 인구소멸 대응 정책연구회가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담양군 인구소멸 대응 정책연구회는 대표 연구 위원인 박은서 군의원을 중심으로 장명영·박준영 의원 등 총 3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현장견학은 폐교부지를 활용해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곡

성군의 스테이션1928(옛 오곡초교), 체류형 농촌유학의 모범사례로 15가구 학생 21명이 머무르고 있는 곡성군 오산초등학교, 담양군 관내 대안학교 및 다자위 발도르프학교 등 3곳을 방문해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한 해법을 검토했다.

또 충북 괴산군 제비마을을 방문해 공공인대주택, 돌봄서비스 등 정책적 노력을 거쳐 학생 수 14명으로 폐교위

기었던 백봉초등학교를 주민과 지자체가 합심해 지역 거점으로 재창조한 우수사례를 살폈다.

박은서 군의원은 "이번 현장견학을 통해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를 방문해 농촌유학 등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구소멸 대응 정책의 가능성을 살필 수 있었으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연구와 토론회를 거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인구소멸 대응 정책연구회는 오는 11월에 연구활동을 종료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담양=정승균기자

“무더위 입맛 되찾아줄 명품 복숭아 즐기세요”

내일부터 '화순 명품 복숭아 축제'

화순군은 25일 "오는 27-28일 이틀간 하니문문화스포츠센터에서 제14회 화순 명품 복숭아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순 명품 복숭아 축제는 화순군의 대표적인 여름 농산물인 복숭아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지난해에는 수확기에 계속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다. 축제는 27일 남만 버스킹을 시작으로 관광객 게임열전, 복숭아 요요제,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개막식에서는 연합회에 속한 13개 작목반에서 출품한 복숭아에 대해 복숭아 당도·과실 크기 등을 심사해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13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축제장 한쪽에 마련된 복숭아 품평회에서는 품평회 출품작 전시 및 복숭아 농가들의 판매가 함께 진행된다. /화순=이병철기자